

제2차 산업자산관리(EAM) 포럼' 개최

- 4월 17일(금) 오후 2시,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
- 국제회계기준인 'IFRS'관련 세미나 및 2009년도 EAM 사업 계획 회의 마련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가 4월 17일(금)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에서 자산관리 인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자산관리(EAM)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EAM포럼에서는 EAM에 관심이 있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포럼 연구위원을 초빙하고 있다. (KSA EAM 포럼 사무국 02-6009-4740~4)

지난 3월, 표준협회는 산업자산의 취득, 운영, 정비와 최종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자산의 생애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인 EAM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의 여러 전문가를 모아 EAM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삼일회계법인의 송석기 회계사가 진행하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해 EAM포럼 1차 회칙안 결정·운영계획·조직 구성 및 올해의 EAM사업계획등과 관련한 회의, 식식 및 토의로 이어진다. 특히 세미나의 주제인 IFRS는 유럽에서는 2005년부터 적용했고, 우리나라 역시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게 의무 적용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협회 품질혁신본부 이종업 본부장은 "EAM포럼은 앞으로 EAM에 대한 최신정보와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조사와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산업계에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표준 2009.5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송풍기(Fan) 해외인증, 국내에서도 가능 국제기준의 공조기기 성능평가장치 구축 국제인증(AMCA)독립시험소 인정획득

국제기준의 공조기기 및 송풍기 성능평가장치가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구축됨에 따라 국내 송풍기의 품질 향상과 고효율, 저소음형 송풍기의 개발이 촉진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조분야에서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조분야 인증프로그램인 AMCA CRP를 국내에서도 취득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원장 김윤광)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식)의 지원으로 사실상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송풍기 성능평가장치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 송풍기분야의 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은 AMCA International의 독립시험소로 지정되어, AMCA CRP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기업이 AMCA CRP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카고)으로 제품을 보내서 평가를 받았지만, 독립 시험소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AMCA CRP관련 시험 의뢰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5일 국제공조기기협회(AMCA)와 공동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되는 2009 中國 制冷展(제냉전)에서 내외신 기자와 관련기관 및 업체관계자가 참석하여 독립시험소 인정 축하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AMCA CRP취득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AMCA International 독립시험소 조인식 장면

앞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급변 측정정확도가 높은 성능평가장치의 도입을 계기로 KS 표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으로써 국내 송풍기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풍기(fan)는 공조시스템 등에서 회전체(impeller)를 구동하여 공기를 이송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기로서, 최근 쾌적한 환경 및 고효율이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산업분야로, 화력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산업현장, 폐수처리장, 쓰레기소각로, 공업로 등 환경분야, 빈딩공조시스템, 터널, 지하철 등 건설·건축분야, 가전제품, 선박, 자동차 등 일반분야 등으로 산업현장과 대형빌딩의 공조시스템 등 사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국산 송풍기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는 등 품질수준이 낮아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등에서는 송풍기의 성능 및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실비현장에서는 국산 송풍기보다는 선진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산업용 송풍기의 국내의 시장 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국내 관련업체는 100억 이상 매출업체 10개 정도를 포함하여 200여개 업체들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국내시장 2,000억원, 세계시장 50억불 규모이다.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친환경·고효율, 저소음·저진동 기기의 기술 트렌드로 진보되고 있다.

그러나, 송풍기 시장은 소규모 위주의 업계구성, 동종업계 간 규모 및 기술력의 양극화 구조, 신규분야의 응용력, 융합화 등 고부가가치화 연계미흡, 설계 및 제작인력 등 기초 인프라 취약, 원천설계기술, 제품성능 평가 설비 부족으로 제품성능 및 효율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자체설계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선진국 제품의 단순 카피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품질과 성능수준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기술표준원의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년간에 걸쳐 4,300CMM급 까지 성능평가가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송풍기 성능평가 시험 장치와 성능과 소음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설비(간향실)를 아시아 최초로 구축하였고, 급변에 AMCA International의 독립 시험소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고효율·저소음의 송풍기의 개발 및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fan 반의 성능을 측정하여 적정모터의 채택이 가능해져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AMCA 해외 인증 취득 시, 모델당 시험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이나, 전적 비용이 시험비용의 최고 3배에 달하고, 인증 취득까지의 소요시간도 보통 3~4개월이 소요되어, 업체에게

상당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AMCA International의 독립시험소 인정취득을 통해서,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MCA CRP : 송풍기 성능을 엄격하게 측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인증제품은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해외에서는 수출 보증서로 통할 만큼 권위가 있다. 제조업체 카탈로그상의 제품모델을 대상으로 AMCA 규격으로 시험을 진행한 후, 성능을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팬 성능 및 소음, 루버, 댄퍼, 제연 시험 등 인증 프로그램이 있으며, 4개의 인증 seal과 7개의 시험표준이 있다.

AMCA(Air-Movement & Control Association International, Inc) : 1917년 설립된 전세계 송풍기, 공조기기 제조업체로 구성된 비영리협회로, 미국 일리노이주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33개국의 259개사, 근무인원은 약 20 여명이다. 송풍기, 루버, 댄퍼, 에어커튼 등의 제품 기술기준 개발 및 품질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송풍기 분야에서 80여년의 규격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AMCA 규격은 ANSI 및 ISO 규격으로 채택되는 등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 기술표준 2009.5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건축용 내외장 판넬의 고내구성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전기 마련”

(주)기린산업 -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업무협력협약(MOU) 체결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원장 안병만)은 (주)기린산업(대표이사 안정수)과 '건축자재의 품질향상과 기술력제고를 위한 시험평가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지난 4월1일 체결했다.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의 신뢰성, 내후성 및 화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단열 및 내화 등의 열환경에 관한 시험분석과 기술지원등의 상호협력체제를 수립키로 했다.

(주)기린산업은 1981년 설립 이후 건축용 판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확대에 주력해왔다. 2008년 건축용 판넬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CE인증을 획득했고, FM Global로부터 FM (Factory Mutual)인증을 받는 등 관련업계를 선도하며 그 입지를 다져왔다.

금번 업무협약으로 건축용 판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고내구성자재 생산의 전기가 마련되어 미국과 중동 등 해외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표준 2009.5

“실내공기질 문제의 현재와 미래 2009 국제 심포지움 개최”

- 생활제품 · 교통수단 등의 실내오염 저감 정책 및 연구동향 발표 -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원장 안병만)은「제4회 국제 심포지움 실내공기질 문제의 현재와 미래 2009」 “생활제품 · 교통수단 등의 실내오염 저감 정책 및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4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코엑스(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내 · 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심포지움은 2006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행사로, 국내 · 외 실내공기질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실내공기환경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 연구활동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의 김상철 센터장을 비롯하여 환경부의 정종신 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박사 및 일본건설시험센터의 Fujimoto 그룹리더, 일본 ISUZU 자동차의 Matsunaga 부장 등 국내 · 외 실내공기질 전문가들이 자동차, 전기 · 전자제품 및 기능성 건축자재의 연구 동향과 각국의 정책방향을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기술의 제도적 발전과 함께 관련 학술 연구를 촉진시키며, 다른 국가의 경험과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실내공기환경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 2009.5

자동차 품질 성능 향상을 위한 신뢰성 · 내후성 공동연구 수행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현대자동차(주) MOU 체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은 현대자동차(주)와 자동차의 품질성능 향상을 위한 신뢰성 및 내후성 기술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4월 21일 체결했다. 양기관은 실차 옥외폭로시험을 위한 시험평가를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열화 평가, 고장원인분석, 실내속건내후성시험, 옥외폭로시험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은 서산옥외폭로시험장에 현대자동차 실차옥외폭로시험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산업의 긴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제품 성능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 2009.5



KTR, 기술 흠닥터 서비스 실시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은 2009년 4월 1일,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 흠닥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 흠닥터 서비스는 그동안 KTR에 투자가 많은 지원을 한 울산시, 전라남도, 화순군 등

3곳에서 실시하였다. 해당분야의 전문상담 연구원이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이날 시험을 요청한 고객에게는 시험 수수료를 40% 할인해주었다.

KTR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술 흠닥터 행사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품 제조업체 엠포엠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한·러 시험인증기관 간 MOU 체결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은 대러시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대표시험인증기관들과의 업무협의 및 MOU를 체결하였다.



4월 20일, 러시아의 시험인증기관(Mednikov Alexey : ROSTEST 부사장)과 KTR 간 MOU 체결

4월 20일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러시아 기술규제계량청간 MOU 체결을 한 후 이어서 KTR과 러시아 대표 시험인증센터(ROSTEST-MOSCOW)의 MOU를 체결하였다.

※ ROSTEST-MOSCOW : The Russian Center of Tests and Certification-Moscow

조기성 원장은 '이번 방문 및 MOU 체결을 통하여 대러시아 수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러시아 인증(GOST-R 마크) 획득을 필요로 하는 수출기업에 보다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노보시비리스크에 있는 인증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러시아에 수출하는 건축, 건설관련 자재의 인증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태평양국립경제대학교(PSUE, V.C.Belkin 총장)와 KTR(조기성 원장) 간 MOU를 체결하여 우리 기업이 쉽게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러시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4월 24일, 러시아 태평양국립경제대학교(PSUE) 총장과 MOU 체결

향후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GOST-R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및 수출기간 단축효과 및 양국 간 시험분석 기술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4월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영방송과의 인터뷰

| 기술표준 2009.5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실시(4/30)

- 부산 경남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4월 30일 부산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동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월에 있었던 교육에서 지방의 피교육자들의 요청에 의해 부산시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었다.

교육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일반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은 신규 놀이터는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놀이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우리연구원에서는 지방의 피교육자를 위하여 차후에도 지방에서 교육을 실시 할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에스컬레이터는 런닝머신이 아닙니다

이색 안전퍼포먼스 눈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 3회 국제방재산업박람회(IDEMEX 2009)에 참가해 '승강기 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

미국, 일본 등 6개국 130개사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승관원은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는 런닝머신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여 국내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승강기 안전체험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은 무료다. 체험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어린이용 승강기 안전 교육책자와 각종 안전홍보물이 제공된다.



| 기술표준 2009.5

승관원-비엔투홀딩스-동우E&C와 3자간 업무협약체결 키르기스 대단지 아파트 승강기 감리수행

- 국가브랜드 제고 및 국내 승강기 업체 중앙포에 본격진출 토대마련 -

우리나라의 앞선 승강기 감리기술과 제품이 중앙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김남덕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지난 23일 (목) 오후 4시 대구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 주택건설 시행사 대표인 (주)비엔투 홀딩스 이흥기 회장 및 (주)동우E&C 홍호용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 설치업체 선정 및 감리업무 대행」을 골자로 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비엔투 홀딩스 등 키르기스 정부주택건설 시행사인 이들 건설사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서 '승강기 업체선정과 감리 등 전반적인 업무일체를 승관원이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르기스 건설청이 제1차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총 4,000세대 1만6천여명 가량이 입주할 예정이며, 18~25층 규모로 중앙아시아에선 최대단지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승강기 제품과 감리기술이 키르기스 등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동시에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승관원은 앞으로 글로벌 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중앙아시아는 물론, 베트남, 아프리카 등 블루오션 시장으로 승강기 기술교류를 점차 확대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김남덕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체결이 국가 자원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가 중앙아시아라는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관원은 한국승강기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키르기스 대통령궁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 기술표준 2009.5